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협력소장

7월

유재석의 육계사양관리 핵심포인트

7월의 장마와 8월의 무더위는 육계사육에 어려움을 주는 주 요소들이다.

환경조절계사인 무창계사라면 위의 두 가지 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개방계사에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대책이 쉽지 않다.

혹서기에서의 육계 사양관리 중 이번 달에는 입추시의 사양관리, 점등, 그리고 안전 사고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입추시의 사양관리

필자는 오늘도 병아리를 입추하는 농장에 방문하여 입추상황을 체크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이 참으로 어렵다.

여름철 한낮의 더위는 누가 생각해도 병아리수송과 입추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낮 2시에 농장에 도착한 병아리는 40,000수중 17박스가 찼다.

병아리가 찼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① 전날 밤 10시에 발생된 병아리였다.
- ② 부화장에 수송차량이 부족하여 아침 11시에 출발했다.
- ③ 40,000수를 차량 한대에 싣고 3시간 운전하고 왔다.
- ④ 농장에 사전 연락을 못해 하차인원이 2명밖에 없었다.
- ⑤ 병아리 도착시 외부온도가 32℃였다.
- ⑥ 담당자와 충분한 출발 및 도착시간 협의가 없었다.
- ⑦ 농장 약도가 부정확했다.

모두 사전에 확인만 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

여름철에 초기 폐사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이 탈수였다. 탈수는 단순히 물을 못 먹어서 뿐 아니라 습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겨울에만 습도에 신경을 쓰는데 여름철 혹서기에도 충분한 습도유지는 필요하다. 단지 습도가 높을 때 상대적으로 온도관리를 잘해서 계사 육추기간에 병아리가 찌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서기는 계사내 온도가 32℃ 정도에 상대습도 65%내이면 병아리가 적응하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병아리의 활동상태에 따라 혹은 병아리의 크기 등에 따라 온도를 조

정해준다.

초산(중량이 32~36g)은 2~3℃ 정도 높여주는 것이 고르게 퍼진다.

연이사료(물에 갠 사료)는 정상적일 때는 하루만 주고 병아리가 약한 경우에는 2~3일간 종이 위에 뿌려준다. 급이기 옆에 비닐을 깔아서 비닐 위에 갠 사료를 주거나 마른 초기사료를 일렬로 뿌려주어 약한 병아리는 바닥에 있는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병아리는 급이기 안에 있는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난좌나 꼬마물통을 추가 공급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탈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육추실 열풍기는 가급적 간접 열풍기를 사용하고 육추실 크기는 개방계사에서는 150수/평 내외의 크기로 하고 무창계사에서는 절반육추나 전면육추를 실시하여 충분한 급이, 급수공간을 확보해줘야 충어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2. 점등

점등은 점등시간과 점등광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효과를 최대 할 수가 있다.

육계에서는 일령이 증가할수록 광도를 낮춰서 어렵게 하는 방법과 아예 소등을 해서 재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조감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장은 일령이 지날수록 어렵게 해줘서 닭의 활동력을 최대한 억제해서 사료효율을 좋게 하고 증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점등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사내 급이기 개수는 급이기 팬 한 개의 비율이 육계 60수가 넘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즉 20,000수 계사에서의 급이기 팬 개수는 330개 이상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팬의 크기는 보통 지름이 32cm이며 농장별로 급이기 팬 1개당 몇 수가 사료를 먹고 있는지 개수를 체크해 봐야 한다.

급수기는 점등프로그램을 적용시켜 효과를 최대 하기 위해서 넙플은 한 개당 닭이 12~15수가 넘으면 안된다. 즉 20,000수 계사의 경우 1,660~1,330개 정도의 넙플 개수가 필요하다. 개방계사에서의 1자 급수기의 경우 1.8m 급수기의 경우 급수기 1개당 110수가 넘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2.4m(3자)짜리의 경우 급수기 1개당 150수가 넘으면 안된다. 종형이나 원형의 경우도 급수기 한 개당 65수 이상이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충분한 급이와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하에서만 여름철 점등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저녁 10시경까지 전체 불을 꺼 줬다가 10시경부터 새벽 1시까지 불을 켜주고 이후 새벽 4시까지 다시 불을 꺼 줬다가 4시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주는 방법이 매우 효과가 있었다(개방계사의 경우).

병아리 때는 20Lux 이상의 조도가 필요하고(충어리 예방) 10일령 이후부터 점차 어렵게 해서 25일령 이후에는 5Lux 내외로 유지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무창계사).

3. 혹서기의 안전사고 유형

- ① 수송도중 및 농장도착 직전 병아리를 찌는 경우
- 입추시 사양관리 참조
- ② 환의 과도한 사용(용량부족)으로 모터가 과열되면서 화재 및 정전으로 질식사
- ③ 고온시 쿨링패드나 안개분무장치를 이용한 과습 및 고온으로 출하직전 찌는 경우
- ④ 무창계사에서 입추당일 육추실 고온으로 인한 박스 폐사(입추당일 계사온도 22℃ 내외)
- ⑤ 정전 및 누전으로 인한 환의 작동정지로 고온 폐사(발전기 점검)
- ⑥ 주간 출하 작업으로 인한 압사
- ⑦ 기타 C